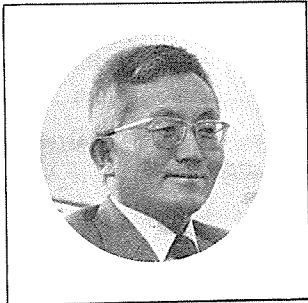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의 맥 <29>

科學者의 傳記에 인식한

韓國科學者들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 · 科學史)

최근에 이화여자대학교의 鄭瑢載교수가 「찰스 다윈」이란 제목의 책을 냈다. “인간 다윈과 다윈 니즘”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 이 책은 280페이지의 상당히 본격적인 다윈 전기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이 책은 아마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자가 쓴 과학자 전기의 첫 경우라고 보인다. 아니 과학자가 쓴 것으로만 처음이 아니라 누가 쓴 것으로나 처음일지 모르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이 이쯤 발전했다고 걸핏하면 자랑하기도 하는 지금까지도 과학자 기술자에 대한 전기 작품 하나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몇 사람의 과학자 전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외국 작품을 번역했거나 베낀 것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연구분야의 과거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중 어떤 인물의 전기를 써준다면 한국의 과학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과학의 대중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둘째로 이 책은 상당히 자세하게 다윈주의가 동양 여러 나라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사실은 다윈주의가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3년전 작고한 성균관대학교의 朴相允교수가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발표도 한적이 있다. 정용재교수는 이 책 첫장에 “동문이며 6촌간인 故樓岩 朴相允박사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써 놓고 있다. 그리고 다윈주의가 한국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박교수의 논문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인간적인 체취가 물씬 풍기는 책이라 하겠다.

찰스 다윈(1809~1882)과 그가 1859년에 출판한 책 「종의 기원」은 과학사에서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윈은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며, 생물학 혁명을 불러 온 장본인이라 꼽히고 있다. 그런데 그의 진화론은 생물학에서 못지 않게 사회·사상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영향을 전세계에 남겼다. 생물계에서 새로운 종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윈이 생물계의 “생존 경쟁”을 그 근원적 배경으로 보고 이 경쟁에서 “적자 생존” 및 “자연 도태”의 원칙을 말하자 이 표현들은 그대로 인간사회를 설명하는 법

칙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면 다윈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는 언제 처음 알려졌으며, 그후 어떤 영향을 미쳤던 걸까. 나의 조사로는 다윈의 이름과 그 이론이 꽤 설명된 글은 1884년 초에 처음 나타난다. 1883년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신문으로 「漢城旬報」가 간행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신문 제14호는 1884년 음력 2월11일자로 나왔는데, 이 신문의 기사 “泰西文學源流考”에 다윈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글은 한자 3,510자의 긴 기사인데, 제목에는 “문학”이라 써 있지만 지금의 문학의 역사가 아니라 순전히 과학의 역사를 담고 있다. 주로 천문학, 수학, 물리학, 화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끝에 생물학의 역사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린네, 라마르크, 다윈등 세명의 생물학자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린네는 생물의 분류를 한 사람으로, 라마르크는 생물의 변화를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진화론은 라마르크가 처음 말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다윈에 대해서는 40년 전에 영국의 사 다윈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각지의 동식물을 연구하여 라마르크의 학설을 들어 그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소개했다.

다윈은 에든버러대학에 들어가 의학을 공부하다가 그만 둔 일은 있지만 의사는 아니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대로 의사였지만 다윈 자신은 의사자격을 얻지 못하고 학교를 케임브리지대학 신학과로 옮겼다. 의사가 아니면 목사라도 시켜 보려던 그의 아버지의 꿈은 헛되이 끝나 다윈은 목사도 되지 못하고 아무 직업도 없는 박물학자로 일생을 마쳤다. 또 그가 라마르크의 이론을 지지 발전시켰다는 것도 이상하다면 이상하고, 그의 이론을 설명한 부분은 더욱 이상하다.

이어서 이 기사에는 다윈이 그의 이론을 1859년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은 「物類推原」이라 적혀 있다. 이 책은 각국에서 다루어 번역되어 많은 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따르고 있는데, 요컨대 그의 이론은 “순화설”이라고 이 글은 결

론짓고 있다. 104년전에 쓰여진 이 기사에는 「종의 기원」이란 책 이름이 「물류추원」, 진화론은 醇化說로 지금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기는 이 때의 다윈은 이름도 “달이온”(達爾溫)이란 한자로 써 있고, 린네는 임니(林尼), 라마르크는 뢰마(賴摩)라 적혀있다. 이 신문은 순한자 신문이었고, 당시 이런 기사는 거의 중국의 신문잡지등을 빼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은 어쩔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여하튼 1880년대에는 아직 다윈의 진정한 의미가 한국인들에게는 실감있게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1895년 일본에서 출판된 兪吉濬의 西遊見聞은 우리나라의 개화기에 서양문물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중요한 책이었다. 특히 유길준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 1885년 귀국한 뒤 얼마 뒤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유길준은 1877년 일본 도오쿄대학에 첫 동물학 교수로 초빙되어 와서 일본에 진화론의 선풍을 일으킨 장본인 E. S. 모스(1838~1925)를 좇아 그의 미국집에서 머물기 까지 했으나 「서유견문」에는 그 영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의 한 기사에는 서양의 유명한 생물학자 5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진화론을 지지하여 유명한 헉슬리와 그의 스승이기도 했던 역시 진화론자 모스는 있으면서 정작 다윈의 이름은 없다.

그러나 진화론 또는 그것이 강조하는 생존경쟁, 적자생존, 자연도태등의 생각은 190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지식층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을사조약(1905)을 전후하여 일기 시작한 애국계몽운동은 전국에서 맹렬한 교육열을 일으켰고, 또 여러 애국계몽단체들이 세워져 그들의 기관지형식으로 잡지들이 여럿 발간되었고 신문도 몇 가지가 새로 등장했는데, 이들을 통해 갑자기 다윈주의를 표방한 논설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대한매일신보」등의 신문과 「서우학회월보」, 「태극학보」, 「대한자강회월보」, 「공수학보」, 「대한협회회보」, 「교남교육회잡지」 등 애국단체의

기관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상룡, 장지연, 박은식등 당대의 최고가는 지성이 진화론에 심취하여 진화론에 바탕을 둔 사회진화설이 마치 완전히 증명된 사회발전의 법칙인 듯 글을 썼다. 한말의 독립운동을 역사로 기록해 남겨 유명한 朴殷植은 생존경쟁은 자연변화의 이치이며 優勝劣敗는 밝혀진 법칙이라고 썼다.

그런데, 이들의 글을 보면 대개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는데, 그 용어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진화” “생존경쟁”등의 표현 대신에 아직도 “天演” “物競”이란 말을 쓰고 다윈도 “達爾文”이란 한자로 적혀 있다. 이것은 모두 1896년 嚴復이 중국의 진화론에 관한 허슬리의 책을 「天演論」이라 번역하면서 시작된 중국식 용어였다.

이 책은 당시의 중국 청년 지식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 梁啓超, 胡適, 毛澤東이 모두 여기 속한다. 특히 호적은 원래 이름이 胡洪驤이었으나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주의의 슬로건에 영향받아 자기 자신이 생존 경쟁의 “적”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의로 어렸을 때 이름을 “호적”이라 바꾸었다. 또 1868년 엄복의 번역을 초고상태에서 읽었던 양계초는 1898년 戊戌變法운동에 가담했다가 실패한 뒤 일본에 망명하여 일본 지성계를 풍미하던 다윈주의를 받아들여 많은 글을 써서 다윈주의를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애국계몽운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글이 바로 이 시절 양계초가 쓴 것이었다. 그의 글을 모은 「飲水室文集」은 당시 이 땅의 최고가는 베스트 셀러였다. 그리고 바로 양계초의 다윈주의적인 역사관을 읽고 영향받은 것이 유명한 申采浩(1880~1936)의 역사관이였다. 신채호는 그의 「조선 상고사」 첫머리에서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我」와 「非我」의 투쟁...”이라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 사회에 투쟁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세상은 “약육강식”과 “우승 열패”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다만 현시점에서 투쟁의 단위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해석만이 사람에 따라 달랐을 뿐

이었다. 민족과 민족의 투쟁을 근본적이라 믿은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가 되었고, 백인종과 황인종 사이의 투쟁을 근본적인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종주의를 부르짖으며 황인종끼리의 단결을 외쳤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전제하고 투쟁의 근본은 계급과 계급사이에 있다면서 계급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든 사회주의자들도 나타났

다. 식민지시대 한국 지식인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고, 1930년대에도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는 찰스 다윈일 수 밖에 없었다. 193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은 직접적인 민족운동이 모두 일제에 의해 차단된 가운데 과학 대중화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었다. 1934년 4월19일 서울, 평양 등 큰도시에서는 자동차가 총동원되어 시내를 돌며 과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시위를 했고, 강연회, 견학, 활동사진 상영, 라디오방송 등 대대적인 행사가 벌어졌다. 그 후 몇년 동안 벌어진 「과학 데이」행사는 1930년대 말에는 일제에 의해 간접적 민족운동으로 지목되어 탄압받아 사라져 버렸다.

반세기 전의 「과학 데이」는 바로 1932년 4월 19일이 찰스 다윈의 50주기였기 때문에 그 날로 정해졌다. 과학자 다윈에게 투쟁에찬의 사회사상을 세계에 퍼뜨린 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그는 그런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것처럼 일반에게 이해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 뜻에서는 요즘 한국인 또는 세계 사람들에게 다윈은 이미 가장 유명한 과학자는 아닌 것 같다.

남과 북이 갈려 대결과 투쟁의 정당성만 강조되어 온 것이 우리 한국적 풍토였다고도 생각된다.

소위 「사회적 다윈주의」는 세계가 이미 집어 던진 사실이건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다. 핵무기와 공해등으로 전인류의 문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지금 우리는 투쟁이 아닌 화합만이 인류의 장래를 약속한다는 새로운 과학적 결론을 이미 얻고 있다. 우리 한국인도 하루 속히 투쟁 만능의 시대를 뛰어 넘어 새 시대를 만드는 지혜를 배워야겠다.